

**요**즘 우리들은 먹거리의 풍요 속에서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과학기술의 괄목할 발전으로 국민들의 식탁은 양적으로 풍요로워졌으며 질적 향상으로도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먹거리 생산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요즘 신문이나 TV등 매스컴에는 농산물중에 맹독·발암성 농약의 잔류, 중금속원소의 오염 등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는 자동차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과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 석면 등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수돗물은 염화비닐과 같

은 발암성물질에 오염되고, 지하수는 대장균등 세균이 우글거리고 있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안심하고 먹을 먹거리도, 호흡할 공기도, 마실 물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 모두가 오염된 듯한 매스컴의 보도

과연 보도내용들과 같이 우리들의 먹거리, 공기나 물이 맹독성이고 발암성인 물질로 오염되어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수명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단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혹자는 현대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된 것으로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 의학에서 사용되는 의약품도 농약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독성을 가지는 물질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약보다 더욱 독성이 강한 것도 있다.

농약과 현대 의학의 차이는 독성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치료 또는 예방하고자 하는 대상이 식물인가 동물인가에 따라서 다를 뿐이다.

#### 편집위원 칼럼

불안감 자극하는 보도태도 아쉽다



# 언제까지 진실이 가려져야 하나

진실 외면한 보도, 국민에게 피해만 준다

## 정도의 차이일뿐 모든 화학물질은 有毒

우리 주위의 모든 화학물질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독성을 가지지 않는 물질은 없다. 그러나 이들 물질에 의한 피해는 그 독성의 질(독성의 높고 낮음)이 아니고 양(물질의 흡수 또는 접촉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즉 아무리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는 정도의 극미량이 흡수 또는 접촉된다면 안전할 것이고, 아무리 독성이 낮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과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유해하다는 독성학의 창시자 파라켈수스의 진리를 우리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먹거리에, 공기중에, 음용수 중에 유해물질이 잔류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양이 잔류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진리를 무시하고 유해물질이 잔류한다는 사실만으로 먹거리의 유해성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크나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농약 원제의

독성을 기준으로 제품농약의 독성을 계산하는 방법과 조건표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는 농약독성 시험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제품농약의 독성을 구분하여 농약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한 배려이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맹·고독성 농약에 마치 WHO가 사용금지한 농약으로 둔갑시켜 보도함으로써 사용하는 농민이나 생산된 농산물을 먹는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 사실 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보일색

WHO는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제기구가 아니다. 원제기준으로 분류된 맹·고독성 농약도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자국의 농업환경을 고려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수년전부터 각국의 농약 등록상황을 제시하여 설명하였으나 매스컴쪽에서는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는수 없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WHO에 문의하여 “WHO가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기구가 아님”을 문서로 회답받아 제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마찬가지로의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안타깝다.

먹거리에 대한 잘못된 평가,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아무리 허기진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은 어디까지나 진실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농약정보**

